



행복한 동행

펴낸 곳 : 전주송천초등학교
펴낸이 : 교장 한옥희
담당자 : 특수교사 박현주
펴낸 날 : 2023년 4월 19일

우리 모두 개성대로, 울 때는 울고, 기쁠 때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영옥(한지민)의 다운증후군 쌍둥이 언니인 영희 역을 연기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이자 그림작가인 정은혜 씨는 실제 다운증후군이 있는 발달장애인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영희는 독특한 그림체로 여러 인물의 모습을 개성 넘치게 그렸는데요. 드라마에 나온 그림들은 모두 은혜씨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림 작가이던 은혜씨는 과연 어떻게 드라마에 캐스팅이 되었을까요?



출처: tvN, 「우리들의 블루스」 스틸컷

유난히 밝고 잘 웃는 아이였던 은혜씨의 학교생활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또래의 놀림을 받고 친구 없이 외톨이로 학교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은혜씨의 부모님은 이런 은혜씨를 비장애인과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씨가 학교를 졸업하고 20대 중반의 성인이 되었을 때 은혜씨는 온종일 집에서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은혜씨의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화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집에만 있는 은혜씨가 화실로 출근해서 뒷정리와 청소를 하게 했습니다. 화실에서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은혜씨는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고 샘이 나서 화실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부모님은 그날 그린 은혜씨의 그림을 보고 은혜씨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은혜씨를 장애인으로만 알았지, 존재 자체로 인정하지 못해서 ‘은혜씨가 뭘 잘할 수 있을까’를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그림을 통해 비로소 은혜씨를 존재 그 자체로, 은혜씨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그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은혜씨는 양평 문호리 리버마켓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는 캐리커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림 하나를 그리는 데 2시간이나 걸려 완성하기도 하고, 하루에 4명의 그림밖에 그리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많은 사람이 그림을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버마켓에서 셀러로 참여하며 은혜씨는 늘 도움을 받고 불편한 시선을 받던 존재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부탁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후 은혜씨는 캐리커처 외에도 여러 작품을 그려 개인전을 열게 되었고, 개인전을 찾은 노회경 작가의 제안을 받아 「우리들의 블루스」 영희 역에 캐스팅되었다고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은혜씨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어요.

<제 꿈은 다 이뤄졌어요>

‘나는 왜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까?’ 자책했어요. 외톨이고 놀 친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고 너무 좋아해요.

“예쁘게 그려주세요” 부탁도 해요. 하지만 저는 안 예쁘게 그려줘요.

원래 예쁜 얼굴이니까 개성 있게 그려줘요.

사는 것도 그래요. 우리 모두 개성대로. 울 때는 울고, 기쁠 때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장애인식 개선교육 주간(4월 19일 ~ 4월 26일) 동안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행사를 해요.

- ♣ ‘대한민국 1교시’ 시청하고 이야기 나누기
교실에서 ‘대한민국 1교시- 단짝 친구들’ 단편영화를 시청하고 서로 다른 모습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요.
- ♣ 가족과 함께 ‘행복한 동행’ 읽어보기
장애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 소식지 ‘행복한 동행’을 가족과 함께 읽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소식지에 있는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보고, 친구 유형 테스트에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보아요!
- ♣ 점자를 찾아라!
1. 학교나 집, 생활 주변에서 점자를 찾는다.
2. 점자 찾기 활동지에 점자를 연필로 본뜬다.(2개 찾기)
3. 개별1반 복도에 게시된 점자표를 보고 점자의 뜻을 쓴다.
4. 개별1반에서 활동지와 상품을 교환해 간다.(상품소진 시까지)

모두를 위한 글씨체, 온고딕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상품, 시설,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한 보편적인 디자인을 뜻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지난 2021년 고령층과 저시력인까지 아우르는 유니버설디자인 글씨체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바로 ‘온고딕’ 글씨체입니다. 온고딕 글씨체는 ‘더 많은 사람이 읽기 쉽도록’ 만들어진 글씨체입니다. 고령자나 노안, 저시력자 등 시력 약자들도 글자를 쉽게 인지하고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진 글씨체로 글자의 굵기나 글자 사이의 거리에 따라 잘못 읽힐 수 있는 글자를 분석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디자인한 글씨체입니다.

이번 ‘행복한 동행’ 소식지도 온고딕 글씨체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조금 더 글씨가 잘 읽히는 것 같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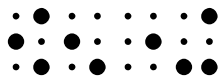
온고딕 영상 보기

어떤 음료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음료를 좋아하시나요? 속이 뽕 뚫리는 사이다, 새콤한 오렌지 주스, 갈증을 해소해주는 이온 음료 등 음료수의 종류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종류별로 진열된 음료수를 고르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음료수에도 점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캔 음료의 윗부분을 보면 점자가 표기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료수에 표기된 이 점자는 어떻게 읽는 걸까요? 음료수에 표기된 점자의 뜻은 바로 ‘음료’입니다.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이온 음료, 아이스티 등 제품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실 수 있는 식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음료’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탄산음료에는 탄산(⠠⠠⠠⠠⠠⠠⠠)으로 표기가 되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탄산도 콜라, 사이다, 오렌지 맛 등의 정보가 아닌 ‘탄산’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탄산이 포함 되어 있지만 ‘음료’로 표기한 제품도 있고, 점자 표기가 없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점자 표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음료를 선택할 때 난관에 부딪힙니다. 원하는 음료를 선택하려면 글자를 읽어주는 어플을 이용하거나,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원하는 음료를 직접 골라 마시는 일이 비장애인에겐은 당연한 일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겐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조금씩 점자 표기를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팔도는 비락식혜에 음료와 ‘하트’ 모양의 점자 표기를 1998년부터 함께 표기해왔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2021년 4월부터 생수와 탄산음료인 ‘칠성사이다’ 페트병에 제품명을 점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점자 표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회사도 시각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이름은 우영우. 거꾸로해도 우영우.

지난여름, 우영우 신드롬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기억하시나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우영우가 로펌(법률 사무소)에 입사하면서 시작되는 파란만장한 변호사 생활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극 중에서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준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영우의 로스쿨 친구인 최수연이 우영우에게 애칭을 지어달라며 부탁하자 우영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처: You Tube <에이스토리 ASTORY>
[이상한변호사우영우|EP5|하이라이트]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넌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에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여러분은 봄날의 햇살 같은 친구가 있나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봄날의 햇살 같은 친구가 되어준 적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도 우영우처럼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독특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가끔 울거나 소리를 크게 낼 때도 있지요.

이렇게 나와 조금 다른 친구에게 여러분은 어떤 친구인지 친구 유형 테스트로 한 번 알아보까요?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해서 나는 어떤 친구 유형인지 확인해보세요!



출처: 세티넷 ‘꿈이 있는 교사’

장애인식 개선 영화&도서 추천

니 얼굴

정은혜, 장차현실/86분/대한민국/전체관람가

그림 그려주시는 건가 봐.
네, 니 얼굴~

어느 뜨거운 여름, 집에서 뜨개질만 하던 은혜씨가 양평 문호리리버마켓의 인기 셀러로 거듭난다 “예쁘게 그려주세요” “원래 예쁜데요. 뭘~” 예쁜 얼굴도 안 예쁘게 그려주는 은혜씨 앞에 4천 명의 사람들이 환하게 웃음 짓는다. 「우리들의 블루스」의 영화 역을 맡아 인상 깊은 연기를 펼친 은혜씨의 이야기에 빠져보아요!



나도 상처받지 않고 친구도 상처받지 않는 말하기 연습

강승임 글, 김규정 그림/위즈덤하우스/2023년

왜 자꾸 내 마음과 다른 말이
튀어나오는 걸까요?

표현이 서툴러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어린이들의 고민을 짚어 보고, 친구와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현명한 말하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